

AIDS NEWS

HIV환자 위한 유전자요법 개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환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면역세포의 생존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유전자요법이 개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하워드 휴즈의학연구소의 개리 네이블 박사는 3명의 HIV 감염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인 CD4-T세포를 분리, 여기에 항바이러스제와 유전자조작된 항바이러스유전자를 투입한뒤 이를 다시 환자에게 주입한 결과 면역세포의 생존기간이 일반 HIV 감염환자에 비해 4.5배나 연장됐다고 밝혔다.

네이블 박사는 이 유전자요법의 목적은 HIV양성 진단이 내려지는 시기와 완전한 에이즈증세가 나타나는 시간의 간격을 연장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로이터=聯合)

에이즈환자 의사선택 가장 중요

경험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에이즈 환자들이 결정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 보고서가 말했다.

워싱턴 대학의 마리 기타하타 박사는 에이즈 치료에 경험이 적은 의사를 만난 환자는 경험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에이즈 환자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타하타 박사의 연구결과는 의사에게 첫번째 또는 두번째, 세번째 에이즈환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는 일부 중요한

치료를 놓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기타하타 박사는 지난 84년부터 94년까지 워싱턴주의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남자 에이즈 환자 4백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에이즈는 치료하기에 복잡한 병으로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 의사들은 기본적인 바이러스 감염 치료 말고도 환자의 면역체계 약화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색다른 감염증세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보스턴 AP=聯合)

프랑스 에이즈 새 요법 치료 본격화

항프로테이스 억제제와 항타이러스 억제제를 혼합투여하는 새로운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법이 4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본격화된다.

항프로테이스 억제제 제조원인 미국 제약사 애보트와 메르크 양사는 지난주 프랑스 보건당국에 조만간 자

신들의 약품을 프랑스측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4월 1일부터 약 4천 5백명의 환자들이 1차로 치료를 받게됐다.

리토니브라는 이름의 항프로테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애보트사는 4월 1일부터 우선 1천5백명 치료분만큼을 공급한 후 추후 공급량을 수요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으며 인디나비르라는 명칭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메르크사는 4월중 3천명, 5월중 다시 3천명, 그리고 6월중 3천명등 올해 최소한 1만명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의료당국은 우선 상태가 심한 환자(T4 기준치가 20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리=聯合)

유전공학 이용한 에이즈 백신 불합격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에이즈



· 세계 최초로 필리핀에서 공연된 AIDS 뮤지컬의 한장면.

AIDS NEWS

백신을 5년간 임상실험한 결과 에이즈를 예방하거나 병의 진전속도를 둔화시키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90년 11월 시작해 지난 95년 12월 끝난 이 실험에서 백신 "GP160"이 에이즈의 진전속도를 둔화시킬 것으로 기대됐으나 불행히도 결과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방부 성명은 말했다.

이 실험은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된 환자중 자택한 6백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들은 2개월마다 에이즈 백신이나 가약을 정기적으로 투여받았다. 실험 대상자 6백8명 가운데 4백83명이 끝까지 실험을 마치고 1백4명은 중도 탈락했으며 21명은 실험이 끝나기전 사망했다. (워싱턴 AP로이터=聯合)

스웨덴 새 HIV백신 곧 인체실험 예정

스웨덴 과학자들은 새로운 유전적 HIV 백신으로 곧 인체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브리타 바렌 교수는 새로운 백신의 인체실험이 에이즈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HIV에 감염된 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한달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렌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 면역체계가 유사한 유전적 백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고 "이것이 인체에도 잘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는지 실험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유전적 백신은 아직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고 있지도 않다. (스톡홀름 로이터=聯合)

日 혈액제 에이즈감염 소송 화해로 매듭

수입 혈액제를 사용한 뒤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병 등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한 일본의 에이즈 소송이 7년 만에 법원의 주선에 따른 양측의 화해로 매듭지어졌다.

도쿄지법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와 유족 등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절차를 마침으로써 수입혈액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 책임에 대한 소송은 국가 및 제약회사의 보상으로 막을 내렸다.

오사카 지역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한 재판도 이날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1인당 4천5백만엔의 일시금을 지급받고 에이즈 발병자는 매월 15만엔의 수당을 받게 됐다. (東京=聯合)

그리스 인공수정위한 정자이용 금지

그리스 당국은 한 여인이 오염된 정자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주장한뒤 인공수정을 위한 정자의 이용을 금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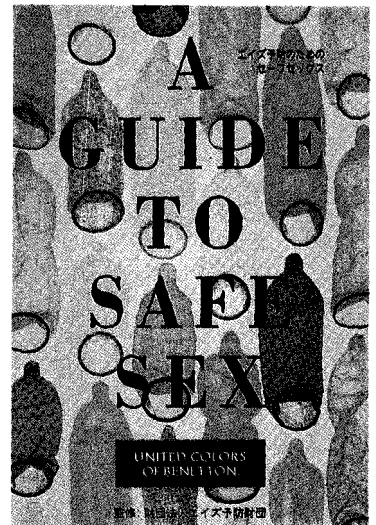
그리스 보건부는 한 성명을 통해

인공수정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전까지 이러한 금지조치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한 여인이 아태대시에 있는 한 민간 정자은행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법률적 보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그리스 검찰은 정자은행을 통한 여인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보건부는 정자은행을 가진 모든 민간 실험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보건부는 정자은행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촉구했다. (아태대 AFP=聯合)



복지부 애보트사 에이즈 진단시약 판매금지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감염 여부 검

AIDS NEWS

사에서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애보트사의 에이즈 진단 시약 제3세대 애보트키트의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애보트키트는 올해 초부터 애보트 국내 법인인 한국애보트가 수입해왔으며 수입량은 약 2만여명을 검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독일정부가 애보트 키트의 진단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5월 31일까지 독일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데 이어 한국애보트도 진단 시약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이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조치를 입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알아본 뒤 추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애보트사는 각종 진단시약분야에서 전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며 지난해 6월부터 에이즈진단시약 제3세대 애보트 키트를 공급해왔으나 최근 유럽에서 4명의 감염자를 음성으로 판정하는 등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聯合)

싱가포르 2만2천명 에이즈 재검사 지시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 애보트사의 에이즈 검사기구가 에이즈 감염 여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으로 최근 밝혀짐에 따라 이 기구로 검사를 받은 약 2만2천명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보건부 발표를 빌려 싱가포르에서 에이즈 보건 검사를 실시하는 24개 병원중 11개소가 애보트사의 검사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재검사 대상이 된 2만2천명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태국 푸켓의 외국인관광객 33% 사찰가 출입

태국남부 관광휴양지 푸켓섬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의 10%가 이곳에 독버섯처럼 번성하고 있는 섹스업소를 찾아 매춘부들과 자주 성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 매춘부들의 3%는 에이즈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태국보건부의

한 연구보고서가 밝혔다.

또한 방콕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인 5백명중 4명(0.8%)꼴로 에이즈감염자로 조사됐다고 경고했다.

푸켓섬에는 세계각국으로부터 관광객이 그치지않고있으며 한국 관광객도 많아 방콕에서 대한항공(KAL)기가 주 3편이나 운행할 정도다.

태국보건부 집계에 의하면 금년들어 지난 3월말 현재 태국의 에이즈감염자는 환자와 보건자를 합쳐 모두 70만~80만으로 추산됐으며 이 기간중 3만6천6백29명이 치료를 받았고 이중 5천6백86명이 사망했다. (방콕=聯合)

여성 에이즈 감염자 급속 증가

에이즈는 주로 남성에게 잘 감염되었으나 지금은 여성에게도 남자들 못지않게 많은 수가 감염되고 있다.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한 보고서에

AIDS NEWS

서 이같이 말하고 여성의 신체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보다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남편들과의 성접촉도 여성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주요 경로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여성들이 에이즈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태국과 인도, 캄보디아의 도시들에서는 매춘부의 3분의 1이 HIV 양성반응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네바 AFP=聯合)

유엔 "아시아-미국 어린이 매춘센터"

유엔 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와 미국이 어린이 매춘센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의 경우 1백만 이상의 어린이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매춘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약 30만명의 어린이 매춘부들이 주로 마약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새로운 정보망을 갖춘 신기술이 어린이 매춘업자와 포르노 조직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통신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포르노 영화 촬영을 위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특히 철의 장막의 붕괴는 동구를 비롯한 전 소련블록 국가들에

서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매춘활동은 젊은이들이 어른보다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적다는 인식때문에 더욱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제네바 AFP=聯合)

베트남 올해 에이즈 퇴치에 500만弗 지출

베트남 정부는 에이즈 퇴치를 위해 올해 5백만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베트남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50만달러가 더 늘어난 액수이다.

베트남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감염 지수가 3천5백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는 에이즈와 관련, 1백35명이 사망했다. (하노이 AFP=聯合)

美서 '보이지 않는 에이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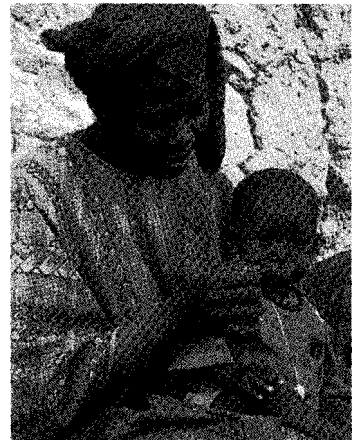
미연방 보건관리들은 표준적인 검사방법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에이즈사례를 확인했다.

아내로부터 아마도 지난 93년이전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유타주의 한 남자가 감염된지 2년후, 그리고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지 1년후까지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체검사방법을 여러차례 받았

지만 아무런 감염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유타주 남자는 93년 부인과 이혼했는데 그녀는 80년대에 동성애와 이성애를 동시에 즐겼던 한 외간남자와 섹스를 가졌으며 이 외간남자는 그후 에이즈로 사망했다.

유타주 남자는 이 이야기를 94년에



전해했고 에이즈 검사를 받았으나 건강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95년 8월 몸무게가 27파운드 줄고 에이즈 환자와 같은 폐렴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년 가을에야 세차해 추가검사중 한 검사에서 그의 몸속에서 항체의 조짐이 포착됨으로써 감염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됐다는 것.

질병통제센터 CDC는 이 남자가 에이즈에 감염된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항체테스트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알지못한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UPI=聯合)